

## 혈액투석 환자에서 아스피린 저항성이 심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및 신장연구소

윤종우, 이영기, 조아진, 최명진, 류지원, 김좌경, 오지은, 구자룡, 김형직, 노정우

### Effect of Aspirin Resistance on Cardiovascular Events in Maintenance Hemodialysis Patients

Jong-Woo Yoon, Young-Ki Lee, Ajin Cho, Myung-Jin Choi, Ji-Won Ryu  
Jwa-Kyung Kim, Jieun Oh, Ja-Ryong Koo, Hyung Jik Kim, Jung-Woo Noh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 Hallym Kidney Research Institute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배경:** 아스피린은 고위험군 환자에서 심혈관질환의 예방에 효과적인 약물이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아스피린 사용에도 불구하고 혈소판 응집이 발생하여 혈전성 질환이 재발하는 아스피린 저항성이 나타나고 있다. 말기신부전 환자에서도 아스피린 저항성에 대한 연구들이 있으며, 저자들은 혈액투석 환자 중 약 15%에서 아스피린 저항성이 동반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아스피린 저항성이 전통적인 위험인자들과 무관하게 말기신부전 환자의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전향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법:**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신부전증 환자 중 아스피린 100-200 mg/day를 1개월 이상 복용하는 117명을 대상으로 Verify Now assay device를 통해 아스피린 저항성을 측정하였으며, aspirin resistance unit (ARU) >550인 경우를 아스피린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대상 환자들을 50개월 동안 추적 관찰하면서 동정맥루 기능부전, 심혈관질환 발생 및 환자 사망을 조사하였다.

**결과:** 대상 환자들의 나이는 평균 57.6±12.1세, 여성 68명(58.1%), 평균 투석기간 51.4개월이었다. 당뇨병 68명(58.1%), 심혈관질환 병력 44명(37.6%)이었으며, 95명(81.2%)은 자가동정맥루를 이용하여 혈액투석 중이었다. 아스피린 저항성은 18명에서 확인되었으며, 나이, 성별, 투석기간, 당뇨병 및 심혈관질환 병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대상 환자 중 29명(32.9%)에서 심혈관질환이 새로 발생하였으며, 나이, 성별, 당뇨병, 심혈관질환 병력, HDL 수치가 심혈관질환 발생의 위험인자로 나타났다. 특히 아스피린 저항성은 혈액투석 환자에서 심혈관질환 발생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또 동정맥루 기능부전 발생 및 환자 사망률도 아스피린 저항성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혈액투석 환자에서 아스피린 저항성은 심혈관계 질환 발생, 환자 사망 및 동정맥루 기능부전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Key Words:** 혈액투석, 혈관석회화, 심혈관질환

Hemodialysis, Vascular calcification, Cardiovascular disease